

FASH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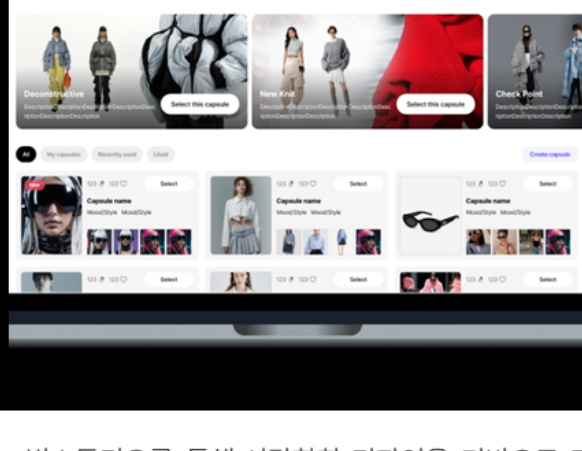
바이스벌사, 2년 연속
데이터바우처 지원 사업
공급기업으로 선정

바이스벌사, AI기반 원스톱 솔루션 제공

패션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브랜드들은 적극적으로 AI기술을 통한 혁신적인 방식의 기획, 마케팅 및 브랜딩을 시도하고 있다. 그 중심에서 2년 연속으로 데이터바우처 지원 사업 공급 기업으로 선정된 바이스벌사가 차별화된 솔루션을 선보이며 업계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바이스벌사는 패션 브랜드가 필요로 하는 모든 콘텐츠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구현할 수 있는 맞춤형 AI 브랜딩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AI 기반의 패션 룩북 제작과 브랜드 캠페인 영상, 고품질의 실사 룩북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브랜드에게 큰 효율성과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바이스벌사의 '빔스튜디오(VIMstudio)'는 패션 브랜드가 AI를 통해 자체적인 스타일과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학습시키고,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손쉽게 시각화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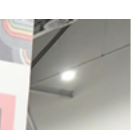


VIMstudio



브랜드는 빔스튜디오를 통해 시각화한 디자인을 기반으로 고객에게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자사물과의 연계를 통해 마케팅 및 세일즈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바이스벌사는 브랜드 데이터, 트렌드 모니터링, 고객 취향 분석 등을 통해 브랜드들이 고객 자사를 세일즈를 극대화할 수 있게 도울 예정이다. 바이스벌사의 데이터 활용 지원은 AI 고객 맞춤형 스타일링 데이터 제공을 통한 클릭률 상승 및 구매율 상승효과와 스트렌드 데이터 및 고객 구매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규 디자인 기획 시간을 단축 등 고객사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안영훈 바이스벌사 대표는 "패션업계에서 데이터 활용을 통한 AI 활용의 문턱을 낮춰, 중소형 브랜드들이 자사물을 키울 수 있는 형태로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3.05 TEXTILE FASHION ISSUE



FASHION

'2025 대구국제섬유박람회(PID)'
3월 5일 엑스코서 개막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패션소재 전문기업 대거 참가

대구시와 경북도가 주최하고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가 주관하는 섬유패션 비즈니스 전시회 '2025 대구국제섬유박람회(Preview in DAEGU, 이하 PID)'가 3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다. 28일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에 따르면 '2025 PID'는 침체된 수출과 내수 비즈니스 진작을 위해 섬유패션산업이 직면한 기후위기와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장벽을 뛰어넘을 미래 혁신 전략을 적극 모색한다.

올해는 섬유산업의 첨단 테크산업으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하며 이에 따라 친환경, 디지털, 첨단소재 등과 융합하는 섬유패션 분야의 혁신 기술과 제품들을 선보인다. '2025 PID'는 지속성장이 전망되는 스포츠산업을 공략하기 위해 건강 및 디지털산업과 융합되는 변화를 반영하고 기후위기 등 지속가능성 이슈에도 적극 대응하는 기능성 섬유소재들을 총망라해 선보인다.

강력한 기능성과 함께 가벼워진 소재, 천연 식물성 및 생분해성 섬유와의 복합소재, △물 및 용매 사용량을 줄인 염색법, △항균·방취 가공, △웨어러블 헬스케어 용품과 호환되는 섬유소재 등이 다양하게 전시될 예정이다. '2025 PID'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패션소재 전문기업들이 대거 참가해 글로벌 경제 및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패션제품의 본질적인 가치를 살린 새로운 컬렉션을 공개한다



FASHION

섬산련 장학재단,
섬유패션 전공 미래인재
에게 장학증서 수여

2025년도 총 351명, 6억7500만원
규모 장학사업 시작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장학재단(이사장 최병오, 이하 섬산련 장학재단)은 지난 2월 27일 섬유센터에서 2025년도 장학재단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국 26개 대학(원), 32개 섬유패션 관련학과 학생 67명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였으며, (주)덕성인코, 삼일방직(주) 등 6곳의 장학금 출연 기업 및 연구기관 대표들과 섬유패션 전공 교수 14명이 직접 참석하여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섬산련 장학재단은 2011년 재단 설립 이후 13년간 총 1574명에게 40억 1200만 원을 지원해 왔다. 2025년도 장학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6억7500만원을 조성했으며, 섬유패션 전문 인재양성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전공자 장학생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였다. 전공자 장학생 장학금은 전년대비 1억200만 원을 증액하여 지원 인원이 전년 대비 22명 확대되었고, 서울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의 학부 및 석·박사 과정 학생들과 부전대, 폴리텍대학 등 전문대의 섬유패션 전공 학생들 67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섬유업계로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대학원생 및 전문대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데 방점을 두고 장학생 인원을 대폭 확대하였다. 대학원 29명(43%), 전문대 22명(33%), 학부16명(24%)이다.

FASHION

효성티앤씨, 폐섬유
활용해 친환경 가방 제작

폐섬유에서 펠트 칩 만들어 원사
뽑아내 패션 제품 제작



효성티앤씨가 루프인더스트리, 폴리크라마마와 함께 폐섬유에서 원사를 뽑아내 가방을 제작했다. 이들 3사는 기존에 주로 사용한 소재인 투명 페트병 대신 폐섬유를 재활용해 페트(PET)칩을 만들고 폴리에스터 원사를 뽑아내는데 이어 패션 제품까지 제작함으로써 친환경 솔루션 분야에서 한 발짝 더 앞서게 됐다. 효성티앤씨는 지난 1월 31일 분사 분할로 인해 루프인더스트리가, 국내 예코 패션 브랜드 폴리크라마마와 협업해 친환경 가방을 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루프인더스트리는 이번 효성티앤씨와의 협업을 통해 폴리에스터 섬유 생산에도 기여하게 됐다. 루프인더스트리는 북미 지역에서 의류 원사나 플라스틱 용기의 원재료가 되는 펠트 칩 개발과 생산을 선도하는 기업이다. 펠트 칩의 주요 소재는 투명 페트병이지만, 루프인더스트리는 투명 페트병 외에 섬유를 포함한 다양한 펠트 폐기물을 100% 화학적으로 재활용해 고품질의 펠트 칩을 생산한다.

효성티앤씨는 루프인더스트리가 폐섬유 폴리에스터로 만든 펠트 칩, 일명 '텍스타일 리사이클(T2T, Textio to Textile)' 칩을 활용해 폴리에스터 원사를 뽑아내며, 폴리크라마마는 이 원사를 활용해 심미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친환경 가방을 디자인하고 제작했다. 이번 협업은 탄소 저감 효과가 뛰어난 T2T 재활용 기술을 바탕으로 '원료 공급-원사 가공-패션 제품 제작' 공급망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막대한 섬유 폐기물을 소각하고 매립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골칫거리다. 루프인더스트리는 폐 폴리에스터를 소각·매립하지 않고 보내는 대신 높은 품질의 펠트 칩으로 재탄생시킴으로써 섬유 폐기물 문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섬유 산업에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루프인더스트리의 T2T 칩은 화학연료에서 생산되는 펠트 칩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80%, 에너지 소비량을 최대 91% 줄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효성티앤씨는 협업을 통해 리사이클 섬유 시장 활성화는 물론 의류 폐기물에서부터 리사이클 제품을 생산에 이르는 진정한 의미의 자원 순환을 통해 친환경 섬유 시장 리더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FASHION

서울시
동대문 패션 상권
살리기 나서

'동대문 K-패션 브랜드 육성' 시범 사업 추진

서울시는 '동대문 K-패션 브랜드 육성' 시범 사업을 올해부터 본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시가 소비 트렌드 변화와 초저가를 내세운 중국산 원자재로 인해 침체기를 겪는 동대문 패션 상권을 살리는 데 앞장서는 것이다. 이 사업은 브랜드 런칭 및 강화 교육, 시제품 제작 지원, 파워셀러 인플루언서 연계 홍보 및 판매, 국내외 바이어 초청 수주전시회 참여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작년 9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 시범 사업에서는 16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수주액 7억 원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는 참가 대상을 동대문 패션 상인과 디자이너 총 90개사로 확대한다. 3월 25일부터 5월 8일까지 DDP에서 '동대문 K-패션 수주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참가자들은 국내외 바이어 및 유통사와 수주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며, 전문가의 지도를 통해 브랜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브랜드는 서울시 누리집 고시공고 및 서울패션허브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무관 서울시 경제실장은 "최근 3고 시대의 어려운 경제 여건과 중국 시장의 공세로 동대문 패션 상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동대문 패션은 여전히 국내 제조의 강점과 감각적인 디자인, 뛰어난 품질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큰 성장 가능성을 갖고 있다"며 "경쟁력 있는 동대문 패션상인과 디자이너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동대문 K-패션 브랜드 육성 사업

동대문
K-FASHION
브랜드 모집공고

모집기간 : 2월 21일(금) ~ 3월 17일(월)

주요 혜택

브랜드 컨설팅 전문 패션리더와 함께 브랜드 컨설팅 지원	시제품 개발 브랜드별 시그니처 상품 시제품 고도화	마케팅 지원 시즌-이벤트별 영상 홍보 콘텐츠(숏폼) 제작	B2B 수주권 국내외 유통 바이어 초청을 통한 판로 확보
--	---------------------------------------	---	---

FASHION

"AI 활용도 높인다"
패션플랫폼, 이미지 검색 고도화

AI 검색 기능, 2030 소비자 유인 늘리고 구매 과정 단축

패션 플랫폼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미지 검색 기능을 고도화하고 있다. 이는 2030 세대 소비자를 유인하고 구매 과정을 단축시켜 구매 전환율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네이버의 크림은 최근 AI 기반 이미지 검색 기능을 도입하여 제품 이미지를 통해 브랜드와 모델을 찾는 과정을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고 있으며, 개인화된 추천 콘텐츠도 강화할 계획이다. 카카오스타일의 지그재그는 2023년 5월부터 AI 기반 이미지 검색 서비스 '직책렌즈'를 시범 운영하였고, 같은 해 9월 정식 출시하였다. 2024년 12월 서비스 개편 후 라이브 카테고리까지 확대 적용하였으며, 자체 개발한 머신러닝 기술로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더욱 정교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에이블리도 2023년 5월부터 AI 사진 검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같은 해 6월 일본 플랫폼 '아무도'에 도입하여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였다.

AI 이미지 검색 기술은 고객 유입에 효과적이며, 시간 대비 효율을 증시하는 2030 세대 소비자들이 적극 활용하고 있다. 에이블리 관계자는 "특정 상품 구매를 원할 경우, AI 이미지 검색을 통해 손쉽게 취향에 맞는 상품을 찾는 등 편리한 쇼핑 경험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상품 검색과 구매 과정을 단축시켜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AI를 통한 서비스 품질 및 업무 효율성 개선이 경쟁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패션 플랫폼들은 AI 기술 도입에 힘을 쏟고 있다.

기사 및 사진 출처

1. FASHIONBIZ, 바이스벌사, 2년 연속 데이터바우처 지원 사업 공급기업으로 선정, 25년 2월 25일
2. 헤럴드경제, '2025년 대구국제섬유박람회(PID)' 다음달 5일 엑스코서 개막, 25년 2월 28일
3. 한국섬유신문, 섬산련 장학재단, 섬유패션 전공 미래인재에게 장학증서 수여, 25년 2월 28일
4. 탑데일리, 효성티앤씨, 폐섬유 활용해 친환경 가방 제작, 25년 2월 24일
5. 뉴스1, 서울시, 브랜드 런칭부터 판로지원까지... 동대문 패션 상권 살리기 나서, 25년 03월 04일
6. etnews, "AI 활용도 높인다"...패션플랫폼, 이미지 검색 고도화, 25년 03월 04일

FABRIC DIVE CONTACT

문의 : 다이텍연구원 데이터융합연구센터

TEL : 053-350-3744, 3908 EMAIL : fabricdive@dyetec.or.kr



JOIN US